

3. 통화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추이

- (무역 수지 흑자 확대)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, 이는 이들 국가들의 환율 절하와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때문임
- (교역 규모 축소) 역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지역 국가들의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, 무역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교역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
- (무역수지 흑자의 문제점) 이들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는 타지역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할 수 있음
- (일본의 역할 확대)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역내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□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교역 추이

- (무역 수지 흑자 확대)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1998년과 1999년에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
 - 홍콩과 필리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1998년 상반기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
 - 97년과 98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1997년 84억 달러 적자에서 98년 상반기에 20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가장 큰 무역 수지 변화를 보이고 있음

<아시아 주요국들의 무역 수지 추이>

(단위: 억 달러)

국가	1997	1998(상반기)
홍콩	-205	-87
인도네시아	117	77
한국	-84	201
말레이시아	-2	56
필리핀	-112	-14
싱가폴	-74	33
대만	75	12
태국	-47	57

자료: World Economic Outlook, IMF, September 1998

- 무역 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은 이들 국가의 환율이 급격히 절하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, 국내 소비 수요가 축소되어 수입이 줄었기 때문임
- (교역 규모 축소) 통화위기의 여파로 1998년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
 - 97년 말 이후 수출 규모가 축소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음
 - 한국, 필리핀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1998년 1월~4월까지의 전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음
 -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수출 비율이 39.7%(97년)로 매우 높은 편인데, 역내 경기가 침체되어 교역이 축소되고 있음
 - 더욱이 통화위기의 여파로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 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다

<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 추이 >

(%)

	1995	1996	1997	1998			
				1월	2월	3월	4월
한국	30.3	3.7	5.0	-0.3	19.9	6.6	6.6
대만	20.0	3.8	5.3	-26.3	11.9	-0.5	-7.3
홍콩	14.8	4.0	4.0	-4.2	-1.1	2.9	-4.1
싱가폴	22.5	5.8	-0.0	-22.7	9.2	-2.6	-12.0
태국	24.8	-1.3	3.4	-11.8	-4.9	-10.5	-
말레이시아	25.9	6.0	0.5	-23.2	8.9	-12.9	-3.2
인도네시아	13.4	9.7	7.3	-2.2	-6.5	11.5	-
필리핀	29.4	17.7	22.8	25.0	22.9	23.6	9.7
중국	23.0	1.5	21.0	8.4	23.5	9.5	7.8

주: 95년-97년은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며 98년은 전월대비 증가율임

자료: *Direction of Trade*, IMF, June 1998

□ 시사점

- (무역 수지 흑자의 문제점)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는 국제 교역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
 - 무역 흑자를 위한 수입 감소는 타 개도국 및 선진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들의 무역 수지 적자로 나타날 수 있음

- 이로 인해 타 개도국이나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
 - 또한 주요 상품 수요의 감소는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신흥 시장의 위기감을 더욱 높이고 있음
- (일본의 역할 확대) 최근 일본의 對동아시아 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위기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
- 일본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일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될 수 있고 이들 국가의 경기 침체를 억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일본의 경기 회복은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화에 중요한 관건임
- (양 두 용 yangdy@hri.co.kr ☎724-4057, 양 성 수 yangs@hri.co.kr ☎724-4017)